

# ‘한국 데이터 통신 구현의 효시’

## -데이터 통신 그룹 창설-

김동규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당연히 전무한 상태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시점에서는 이제 막 컴퓨터 응용이 개시되는 때였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시기에 컴퓨터의 사용은 대형의 컴퓨터 센터를 중심으로 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다.

1973년 봄에 KIST 전자계산부 내에 데이터 통신 그룹이 조직되었다. 우선적인 목표는 원격 지점에서 온라인 터미널 접속을 통하여 KIST Cyber 시스템의 대용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전산화를 급속히 촉진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룹 창설의 주요 목적은 단기적인 온라인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더 긴 안목의 목표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즉 앞으로의 컴퓨터 사용은 데이터 통신에 기반을 두는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견되었고 따라서 KIST 전산부가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최소한 15년 앞을 내다 본 선견지명이었다고나 할까. 현재의 정보 통신의 현란한 전개를 목도하고 있으면 정말이지 중요한 사명을 다 하였고 큰 성취를 주도하였다는 보람을 느낀다.

이 그룹의 창설을 통하여 데이터 통신의 인식 확산과 관련되는 기초 연구의 추진과 국가적인 중장기 데이터 통신망의 계획 수립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KIST 데이터 통

신 그룹의 선구적인 창설과 그 역동적인 활약은 현재 한국의 정보 통신 분야의 발전을 최소한 10여 년 앞당긴 것으로 확신한다.

이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김동규 씨, 정진욱 씨, 한기영 씨 등이 데이터 통신 그룹의 초창기 멤버였는데 김동규 교수는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박사 학위를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취득하였고 한기영 씨는 이 분야의 국제 사업가로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김중권 씨, 변옥환 씨 등은 이들의 후진 그룹에 속한다).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들도 많다(데이콤의 박희원 사장, 콤포의 남석우 사장 등). 박 사장과 남 사장은 당시 터미널 그룹의 데이터 통신 관제실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결국 이 그룹의 선견지명의 영향을 받아 현재 데이터 통신의 주요 산업체를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일꾼들이다.

이 데이터 통신 그룹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대하여 일일이 언급하자면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간단하게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산 모뎀 개발을 제창하여 이를 토대로 최초의 300band 모뎀이 KIST 방식 기기 연구실에서 제작된 바 있고, 한국에서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조기 제공을 주창하기 위하여 주요 샘플 구간에 대하여 데이터 통신 회선 특성 분석을 하고 이를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지에 게재하여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당시의 통신 기술 연구소에서는 이 논문의 주창 논점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KIST에서 1970년대 초반에 처음 제작된 모뎀이 오늘날 성공적인 데이터 통신 산업체로 성장한 사실을 생각하면 전술한 데이터 통신 그룹의 선구성이 실감난다. 지금 필자의 생생한 기억으로는 당시 모뎀 시제품을 개발한 후에 이를 어느 중소기업 사업가에게 사업화할 것을 권장하였는데(리드 타임이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이 사업가가 2년 정도 뛰다가 포기해 버렸다. 이 사람이 2~3년 더 버텼다면 대성공했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쉽다. 또한 매사가 그렇지만 대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선견지명과 신념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 같다.

행정 전산망 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일 먼저 주창한 것도 역시 이 그룹이었고 이 선구적인 제창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국가 기간 전산망의 실현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 감회가

깊다.

또 한가지 생각나는 일은, 당시의 미국 하와이 대학의 알로하 시스템과 위성 중계를 이용하는 대륙간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기초 연구를 행한 일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무궁화 국산 위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격세지감이 느껴진다.